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나키대아르키: 정당한권위는없다

츨스키가틀린이유

ziq

ziq
아나키대아르키: 정당한권위는없다
츨스키가틀린이유
2018-08-08

2019.01.23, 원문링크 https://raddle.me/wiki/expertise_vs_authority
원문 "Anarchy Vs. Archy: No Justified Authority" (영문) 번역본

kr.theanarchistlibrary.org

2018-08-08

차례

아르키: 아나키의반대	3
“정당한권위”에대하여	3
전문성대힘대권위	4
츄스키와의관계	4
구두수선공의전문성	6
아나키의목표를희석하며	6
권위는도덕적위계이다	8
아나키스트육아에관하여	8
희석된아나키	9

‘정당한권위’는우리의 (사실아주쉽게정의되는) 목표를더회색시킴기전에 폐기해야하는아나키에대한여러근본적인오해중하나이다. 우리는필요이상으로복잡하게생각을하는경향이있는데, 이는오로지아나키로부터멀어지고우리의가장기본적인목표가무엇인지에대해서도사람들을헛갈리게하는수정주의적이론더미만든다.

대량학살을주도한모든독재자는자신들이지지하는위계들은정당하다고생각했다. 아나키스트들은이보단잘할수있다. 아나키는모든아르키에대한전면적인반대이고, 반대였고, 영원한반대일것이다.

당신이타협을하고핑계를대위계를만들때, 당신이하는것은더이상아나키가아니다.

아르키: 아나키의반대

아르키⁽¹⁾의사전적의미는내포된계층으로조직된권위적인요원들로이뤄진체계이다. 이것이군주제, 과두제, 공화국, 봉건국가또는그어떠한계층사회이던간에말이다.

아나키는모든계층과권위를반대하는반면아르키는이모든것을온전히구현한다. 아나키는통치자의부재를주장하지만, 아르키는대중이통치자를떠받치고따를때번창한다. 어떨때는소수의통치자가있고 (예. 군주제) 또어떨때는다수의통치자가있다 (예. 사회민주주의).

계층은통치자들의사회적지휘권과대중의지배를위해존재한다. 이 지배는군대, 방위군, 경찰, 법원, 감옥, 공무원, 대중매체, 징세관등통치자들이임명한권위자들의폭력을통해유지된다.

한사람이다른사람에게주는모든지시는계층을만들지않는다. 전문가의전문지식을받아드리는것은계층을만들거나그를당신의지배자로만들지않는다. 당신의지붕을수리하는수리공이나당신의음식을만드는요리사나당신의심장을고치는외과의사는중요한상품을제공한다는이유로당신보다높은계층에놓일필요가없다. 비슷한이유로, 자신을억압하는계층을파괴하기위해폭력을행사한다해서그개인이권위자가되지는않는다. 아르키를파괴하는것은새로운아르키가아닌아나키를만든다.

“정당한권위”에대하여

권위와계층을정당화하기시작하면, 당신은아나키를헛기시작한다. 우리모두“모든권력은타락한다”라는말을들어봤을것이다. 이는빈말이아니다; 아나키가존재하는이유이다.

권위를정당화하는것은아르키의존재를허용한다. 당신이그어떤이유로든개인적으로인정하는권위를정당화면아나키스트라자칭하는것은아무소용이없다. 그어떠한권위도아나키에서는정당하지않다. 이게부모자녀관계라할지라도말이다.

당신이권위를정당화하는순간, 당신은권위에힘을줘주고그어떠한명령이라도절대적으로복종해야하는기관으로인식하고여기서그치지않을것이다. 권위의본성때문에계속해서팽창하려할것이다. 주변에끼치는파괴적인영향을되돌아보지않고항상팽창한다. 권위는해를입힐허가증이다. 권위를정당화했을당

(1) 고대그리스어 ἄρχη에서유래한접미사아르키 (archy) 는아나키 (anarchy) 의어원이되는“무-정부”(an-archy) 에서도찾아볼수있다. 원문에서는“국가”라는단어보다포괄적인용어로쓰이는데, 적절한우리말표현이없어본번역본에서는“아르키”를그대로사용하였다.

시폭력적인정권을세우는것이당신의원래의도였는지는상관없다. 이권위는해를끼칠것이고이권위를정당화한자들은그피해에대한책임이(최소한이론적으로) 있다.

아나키는권위의반대이다. 아닌척하는것은뻔한아나키에대한사칭이다.

전문성대힘대권위

많은사람들은전문지식을권위로혼동하고이혼동을사용하여아나키는모든권위를반대하지않는다고고집한다. 그들은아나키는부당한권위만을반대한다고말한다. 이들은물론누가그권위가정당한지정하는지절대설명하지않는다. 이결정은또다른권위를통해결정하는것인가? 이권위도물론정당화됐을것이고? 그리고이권위는누가정당화하지? 아나키스트들이이‘정당한권위’에대한모순에빠지는것은우습기짝이었다.

목수는잘만들어심지어는전문가일수도있지만, 이는그를권위자로만들지않는다. 그의재주는권위를휘두를권리를, 그누구위에군림할힘을주지않는다. 권위는한사람이힘을사용하는고립된사례가아니다. 권위는사람들간에지속되는특정한사회관계이다. 우리들의계층사회에의해정당화된강압적인관계이다. 권위자가그이보살펴야하는악자들을향해권력을휘두를것이다. 이악자들은이강력한권위앞에무릎꿇고명령을절대적으로따라야한다.

한밤중에집으로돌아가는당신앞에누군가가어두운골목길에서튀어나와당신을칼로찌르려한다는상상을해보자. 이에반응한당신은자신을보호하려다가해자를죽인다하자. 이때당신은단순히당신의힘을사용했을뿐이다. 이는당신을죽이려한사람보다윗사람으로만들지않는다. 자기자신의목숨을보존하려실행한이단한번의행위는당신에게연속살인을저지를신비한권리를부여하지않는다.

비슷하게, 질주하는트럭앞을가로지르는아이의손을잡아멈추려할때당신은권위를행사하고있지않다. 당신은단순히힘을사용하는것이다. 생명을보존하기위한일시적이고충동적인행동은권위가아니다. 당신이둑고있는사람에대한소유권을부여하지않는다. 아나키는체계적인권위의존재를부정하지일시적인힘의사용을문제삼지않는다.

촘스키와의관계

노암촘스키(Noam Chomsky)는‘돌진하는차로부터아이를구하기’예를자신의‘정당한권위’라는개념을설명하기위해사용한다. ‘정당한권위’라는논리

동아프리카의그레이트리프트밸리(Great Rift Valley)에있는오늘날의한자(Hadza)를포함한역사상수많은아나키스트사회들은부모관계는산업자본주의사회의폭력적인독재가될필요가없다는것을보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소위‘아나코-소정부주의자들’은권위주의적사회가아이들에대한‘소유권’을‘정당한위계’로삼는것을고집한다. 참으로이상한주자이다. 자신들의아이들에대해권위주의를적용하는것에동의한다면그들은당연히이를타인을지배하는데사용하는것에도동의할터이다. 단지그들이그렇게선택했기에아이들에대한지배가아나키와호환가능하다고주장하는것이황당할뿐이다.

‘문명인’들은모든아이들이갖고있는자유와, 놀이와, 탐구와직접경험을통한배움에대한강렬한소망을완전히무시하는위험하고, 해롭고권위주의적인환경을만드는실수를저지른다.

우리는아이들을금속차(車)에실어학교에서수년동안모르는사람들로부터엄격한수업을받게한다. 아이들은유년기전부를교실에서교실로 옮겨지며체계에순종하고교양있는노동자로만드는강압적인훈련을받는다. 대부분의아이들은그부모들이산업문명의위험들을두려워한다는이유로바깥에서놀지도못한다.

산업문명은간단히말해인간의성장에이롭지못하다. 우리사회를위험, 권위, 공포, 강압, 처벌, 순응과복종을중심으로조직하는비뚤어진방법들은아이들이나, 사실그누구에게도, 강요돼선안되는것이다. 아나키스트로서우리는이런권위주의적인구조들을해체해야이구조들을유지하기위한핑계를만들어선안된다. 아이들은아나키가필요하지권위를필요하지않는다.

희석된아나키

일부사람들은집산주의아나키즘의권위에대한어설픈정의를고집하여온갖위계를정당화할수있다고자발적으로정한다. 그다음, 이수정주의는더넓은아나키스트영역에들어가고많은집산주의‘아나키스트’들은사실소정부주의자에불구하기때문에그부족한점들은분석되지않기일썩다. 소정부주의자들은자기들이물질적인이득을보는한에서권위에대한실질적인문제를느끼지않는다. 안타깝게도이소정부주의자들은진정한아나키에대한이해는불가해한여러아나키스트공간에서의대화중도한다. 권위주의적체계아래나고자란대부분의사람들은한평생의아르키가그들에게주입한거짓된안정감을저버리는데끔찍한어려움을겪는다. 때문에‘좋은위계’같은말도안되는생각이위공간에서정상화되고진정한아나키가꽃피는것을막는데사용된다.

아나키스트들은‘권위’, ‘힘’그리고‘전문성’간의차이를확실하게해언어적으로해로운소정부주의자가아나키를억누르는것을막아야한다.

권위는도덕적위계이다

위계는권위에의존하는인위적인구조이다. 권위는위계구조의지배자가명령을내리고피지배자는그명령을(사회적으로정당화된) 폭력을피하기위해따르는사회적으로집행되는규칙이다. 내가내상관에게밥을사거나물에빠진것을돕는것은그에대한권위를행사하는것이아니다. 하지만단순히내상관이라는이유로그는나에대한권위를끊임없이행사하고나는그에게끊임없이종속된다. 나는그의지배를받는다. 나는제한됐다; 상사와노동자간의위계의, 내상사의지속적인권위의지배를받는다.

권위는사람들을지배자나피지배자로의도적으로나누는사회구조이다; 폭력과‘도덕성’이라는개념을사용하여이강압적인체계를유지하며말이다. 상사에게말대답하는것, 그의권위를거부하는것: 그것은큰도덕적금기이다. 사회는이강압적인조건화를사용해억압적인관계를유지하고당신을순종적인상태에머물게한다. 체계는그법에대항하는그어떠한실질적인반대를용인하지않을것이다. 대신에체계는당신이법을의심없이받아들일때까지당신을훈련시킬것이다.

‘자유시장’자본주의의지지자들은자본가와노동자간의관계처럼‘자발적인’위계를지지한다고주장한다. 이는약자들에게대한체계적인폭력을정당화하려는핑계에불구할뿐, 권위에호소하는과정이다. 이위계들을무시하기로한다면(예를들어일하기를거부하거나상사를죽여우리들의노동의진정한가치를쟁취하며말이다) 우리는여러방법을통해사회의처벌을받을것이기때문에이위계들은그어떠한관점으로봐도자발적이지않다. ‘정당한위계’와‘합법적인권위’는자본주의아래‘자발적인’노동이라는개념과소름끼치도록비슷하다.

아나키스트육아에관하여

권위는구조적으로폭력적인체계이다. 아이를돕거나, 밥을먹이거나, 수영장에빠져익사하는것을막는행동과는무관하다. 부모관계는당신이이렇게만들려고하지않는이상, 위계일필요가없다.

육아는부모가아이에게권위를행사하려할때에만위계적이다. 아나키스트부모는아이들그들의권위주의적인요구를따르는하급자가아닌자주적인개인으로대하는방식을사용할것이다. 아나키스트부모는자기자신을권력자가아닌보호자로생각하고, 부모의권위를‘정당한위계’라는구실로정당화하는것은핑계일뿐이다. 정당하지않다. 폭력을사용해아이를통제하는것은아나키가아니다. 부모는아이를키우기위해폭군이될필요가없다.

적오류를반복하는사람들은대개츄츄스키의부적절한표현을생각없이반복한다. 그가말하길

“권위는, 정당화되지않은이상, 본질적으로부당하고이정당성을입증할책임은권위를찢자들에게있다.”

그는누군가의권위는입증이된다면정당화돼야한다고고집한다. 하지만물론, 그는누가권위자의증거가정당한지정할권위를가졌는지를설명하지않는다...

그의아나키정의는본질적으로잘못됐다. 그가권위대신단순히‘힘’이라고표현했다라면온갖계층적인잡동사니를임의적으로정당화하고그잡동사니를전혀아닌‘아나키적’이라고주장하는츄츄스키의시중은그렇게많이않았을것이다. 나는그의지지자들이이정의(定義)들을사용해일명‘야경국가’를아나키적이라고주장하는것을봤다. 야경국가는시민들에게군대와경찰과법정만을제공하기위해존재하는국가이다. 이것은소정부주의이지아나키가아니다. 아나키스트국가와아나키스트감옥은가당찮은발상이다.

우리가순진하게소정부주의는바람직하다인정한다고해도이는결국완전한국가주의로다시돌아가게된다. 정당화된권위는절대로멈춰있지않고그팽창을막으려는시도는영원히헛되다는것이증명됐다.

츄츄스키는아나키가무엇을뜻하는지에대한좋은출처가되지않는다. 그는북미의백인중산층의관심을끌기위해아나키를희석시키는것을주업으로삼았다. 심지어국가는본질적으로나쁘지않다고, 그가‘진짜민주주의’와‘투자에대한사회적통제’라고부르는것을통해어떻게든‘개혁’할수있다고주장하기까지했다. 너무많은아나키스트들은츄츄스키를아나키에대한권위자로본다, 사실그는소정부주의자임에도불구하고말이다.

또한그는자신의강연과글에서아나키를계몽주의와고전자유주의에비유한다. 그의이런성향은계몽주의는유럽제국주의자들에의한아프리카의분배와끔찍하게인종차별적이고학살적인사건들이끝났다는점에서특히나서양중심적이다. 때문에아나키를역사의권위주의적장과연관짓는것은아마바람직하지않을것이다... 물론‘아나키즘’이라고불리는정치운동이유럽에서시작한것은사실이지만, 아나키는세계방방곡곡에서계몽운동전과후에, 유럽의철학자들이아나키로돌아가기를갈망하기오래전부터이름없이번창했다.

나는츄츄스키가아나키스트라고여기지않기에(그는자명하게도아니기때문에) 내게는그가사용하는정의는중요하지않다. 하지만안타깝게도, 그정의들은아나키스트라고자칭하는많은소정부주의자와자유주의자에게는중요하고이들은츄츄스키의말을처음아나키를접하는사람들에게반복하여수년동안지속되는혼동을유발한다.

구두수선공의전문성

권위의아나키스트정의에대한츄스키의혼동의근원은아마집산주의아나키즘의창시자미하일바쿠닌일것이다. 그의거칠고미완성된글“권위는무엇인가”(1870)에서그는‘구두수선공의식견’에대해말하였다:

“그렇다면이는내가모든권위를배제한다는뜻인가? 나는절대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구두에관한일이라면나는일을구두수선공의권위에맡긴다; 집이나수로나철로에관한일이라면건축가나엔지니어와참고한다. 각특정한지식의영역에대해나는알맞은전문가와말을나눈다. 하지만나는수선공이나건축가나과학자가내위를군림하게두지는않는다 [...] 하지만나는그어떠한무류한권위도인정하지않는다, 특수한상황에도말이다. [...] 때문에고정되고지속적인권위가아닌상호적이고일시적이고그무엇보다도자발적인권위와종속의끊임없는교환만이있다.”

“자발적인권위와종속”은결국모든자유주의자가지지한다고말하는것들이다. 그들은자본주의는사람들간의자발적인계약이라고주장한다. 그들은노동자들이임금이나안전을위해자발적으로사장이나국가에종속되는것을선택한다고한다. 우리아나키스트들이정말로이런권위주의적인사상을배제하고저항하고싶다면바쿠닌의표현을사용하는것을피해야한다.

위글을통해바쿠닌은전문지식과권위간의차이를설명하려고했지만복잡하고우회적인방법으로설명해소정부주의자들이수대에걸쳐자신이아나키스트라고믿게만들었고아나키에대한잘못된정의를퍼뜨렸다.

그자는유럽의아나키스트운동은아직초창기에있었고여러정의들은막정리되고있을 150 년전서투른주장을펼쳤다. 이는출판되지않은초안의작은일부일뿐이었고자주원문이나같은저자의다른글들을읽지않은사람들에의해아무맥락없이인용된다.

당연히우리는역사상모든아나키스트들이한모든말을불변하는아나키스트문헌으로여기며전부따를필요는없다. 바쿠닌의반유태주의를지지하지않으니, 그가대중만든수선공같은실수를지지할필요도없지않는가?

아나키의목표를희석하며

위에언급한차에치일뻔한행인을구하는에는단순히권위와아무관련도없다. 아나키적관점에서이해하는권위에대한근본적인왜곡이고난이글을통해이왜곡을다룰필요가없는주제가되길바란다. 왕정이던신자유주의이던파시즘이던, 이세상에존재하는모든뒤틀린사상은정당한권위를위하고부정한권위에반대한다고주장한다. 우리는자유주의자들이시리아나이라크에서학교버스를폭격하는

것은‘자유를지키기위한’정당한’행동이라고주장하는것은허튼소리라는것을알면서그들이제시하는아나키에대한거짓된정의따를필요가있는가? 권위를허락하는순간부터당신은아나키를지지하기를그친것이나마찬가지이다.

츄스키가하는것처럼‘정당한권위’를지지하는것은주제에대해잘모르는사람들을헛갈리게하고아나키즘의기분을이해하지못하는수많은중산층출신의미숙한아나키스트만들뿐이다. 이들은아나키즘에대한오해를국가를포함한온갖권위주의적잡동사리를아나키와동일시하는데사용한다. 이는아나키즘과자유주의를나누는선을갈수록희미하게만든다. 그리고, 솔직히, 볼품없는아나키스트들을낳는다.

내가하는말에대한전혀정적인예로유명한아나키스트포럼의자칭‘아나키스트’의말을인용하여본장을마치겠다:

“나는몇가지것들을지속되게하고보호하는권위는필수라고생각한다. 예를들어, 나는모든사회가따라야하는어떠한방법으로도제한될수없는사회적헌법은좋은것이라고생각한다. 또한개인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성문화된법도존재해야한다고생각한다.

때문에, 나는지금존재하는것과같이이러한법들을 -좋은수준의교육에대한권리나, 일정한수준의주거나의료훈련이나건간관리에대한권리나,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등- 보장하는권위가존재해야한다느낀다. 필연적으로이권위는위법/권리가위반되는상황을바꿀능력을갖고있어야한다. 이로부터나는이의무들을착수할잘훈련된자경대가존재해야한다고도생각하게된다 (물론아나키스트전통을따라가장직접민주주의적이고무효화가능하고책임감있는자경단이야할것이다).

이런방식으로나는아나키스트사회처럼작동하지만제한된권위를지닌체계의틀안에서작동하는아나키스트사회들의연합으로이뤄진국가의존재를지지하게된다.”

모두가따라야하는헌법, ‘민주적’경찰, 국가, 권위를지닌체계. 이어떤것도자유주의적현실과다를것없다. 이사람은아나키를이해하고있지않으면서도자기자신을아나키스트라고해야한다느끼는데 ... 자유주의사회가더민주적이길바래서? 말도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포럼내다른‘아나키스트’들은위글을중게받아들였고심지어어떤들은로자바를원문에서제시된이상과일치하는‘아나키스트국가’라고설명했다.

‘아나키스트국가’. ‘아나키스트국가’라니...